

관광시장 확대 위한 전방위 활동 총력

문체부,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 대표단 파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9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3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 대표단(수석대표:노태강 제2차관)을 파견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관광 진흥을 통한 경제 발전과 국제적 이해 증진, 평화에 공헌하고자 1984년에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로, 2003년에 관광 분야 유엔(UN) 전문기구가 된 관광 분야의 세계 최대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전 세계 158개국과 500여 개의 관광 관련 기구와 협회 가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격년으로 열리며, 이번 총회에서는 120여 개국의 관광부처 장관 80여 명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최근 국제관광 동향과 관광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2년간의 예산안과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문체부 대표단은 9월 12일(목), '장관급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하는 관광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광인력 육성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논의한다. 한편, 9월 12일 오후에는 2019~2023년 향후 4년간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연임 여부가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해 이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지도력(리더십)을 인정받아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서 1980년부터 6차례 활동해 온 바 있다. 지난 6월 부탄에서 열린 유엔세계관광기구 아태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차기 집행이사국 후보로 추인을 받았고, 이번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스페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등, 여러 국가의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나라의 외

국인 관광계 시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은 스페인과는 수교 70주년, 말레이시아와는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각 나라의 국민에게 알리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우리나라의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광공무원 방한 초청 정책연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파라과이를 비롯해 남미, 아세안 국가들과도 실질적인 관광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 최대 관광교류의 장에서 우리나라는 미래 관광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광 혁신', '관광의 디지털 전환', '관광인력 양성' 등, 국제관광의 핵심 의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역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가 전 세계 주요국가의 고위급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우리나라의 관광 지도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

'당신 탓이 아닙니다' 日 강제징용 다룬 영상 국내외 호평

일주일만에 조회 수 13만 돌파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담은 해외 홍보 영상이 누리꾼의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제작·배포한 영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 (It's not your fault)'로, 지난 8월 26일 온라인에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3만 건을 넘었다. 영상에는 "한국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 "이 영상은 사실이고 감동적이다" 등의 영어 댓글과 함께 "동아시아와 세계에 평화가 오길 바란다", "기억해야 할 우리의 과거입니다"라는 한국어 댓글도 달려 눈길을 끌었다. 해문홍은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영상은 3일 현재 코리아넷 유튜브 13만 6천 건, 코리아넷 페이스북 124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대체로 조회 수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전했다. 영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일련의 흐름 속에서 강제징용 피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세계 각국 누리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상채받은 주인공을 위로했던 치유 메시지 '당신 탓이 아닙니다'로 시작되는 영상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천 지침인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품위 있는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태평양 전쟁 시대에 강제 동원된 아시아인과 미국인 포로 등의 피해 사례를 짚어 나간다. 잘못을 반성하고 치유에 적극 나섰던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고 일본의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한 후, 자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한 데 대한 일본의 정중한 사과임을 일깨운다. 영상은 코리아넷(www.korea.net)의 유튜브(www.youtube.com/user/GatewayTokorea), 페이스북(koreclickers)에서 볼 수 있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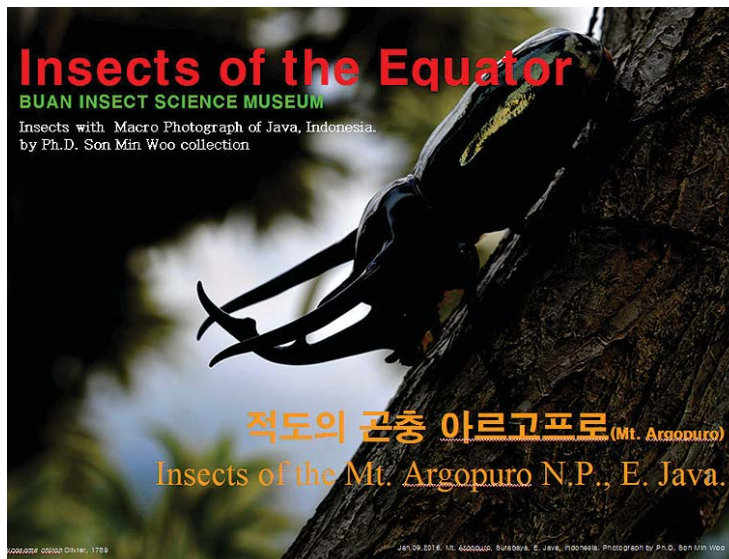


가 있다'는 메시지를 언급하며 태평양 전쟁 시대에 강제 동원된 아시아인과 미국인 포로 등의 피해 사례를 짚어 나간다. 잘못을 반성하고 치유에 적극 나섰던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고 일본의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한 후, 자신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한 데 대한 일본의 정중한 사과임을 일깨운다. 영상은 코리아넷(www.korea.net)의 유튜브(www.youtube.com/user/GatewayTokorea), 페이스북(koreclickers)에서 볼 수 있다. /뉴스

추석 맞이 고향 찾는 귀경객들의 신선한 볼거리!

부안누에타운, 전문기획전 '적도를 가다! 자바섬 아르고프로' 개최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은 2019년 한가위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경인과 관람객들의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12회 전문기획전 '적도를 가다! 자바섬 아르고프로'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위치한 아르고프로 국립공원으로 태고의 자연환경과 화산산 간직하고 열대우림과 소나무 숲, 사바나, 그리고 늪과 호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보고인 이곳의 희귀곤충이다. 정상 높이 3088m 아르고프로 산에서 만난 희귀 곤충들은 장각의 뿔을 자랑하는 초대형 킨장수풍뎅이와 정글의 북병들로 소문난 사마귀들로 이들은 난초 꽃을 그대로 흉내 낸 난초꽃사마귀, 낙엽보다 더 낙엽 같은 낙엽사마귀, 꽃 속에 숨어 날아오는 곤충을 잡는 인내심의 대가 아시아왕사마귀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뭇가지와 구분할 수 없는 비숍스대왕대벌레 등 흉내 내기 명수들과 현지의 풍경을 함께 담아 26개의 주제로 전시한다. 전시회를 기획한 부안군 교육청소년과 손민우 박사는 꽃보다 더 꽃 같고, 나뭇가지보다 더 나뭇가지 같은 신기한 곤충들을 현장감 있는 생태표본으로 담았다. 문숙자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전문기획전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은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이 '적도를 가다! 자바섬 아르고프로'를 개최한다.

희귀곤충들로 오지를 직접 찾아가 담아 온 곤충들로 전시되는 만큼 가족과 함께 방문해 좋은 추억을 담아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누에타운은 제8호 국가중요농업 유산으로 등록된 168년 전통의 유우마을(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434-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누에타운(☎ 063-580-4334/40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산시 왕도역사관, 추석 연휴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제공

익산시 왕도역사관이 추석 연휴기간(9월 12일~15일) 정상 개관해 전시관 관람은 물론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광장에서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전시관 좌우 입구에서는 팽과리, 징, 북, 장구 등의 사물놀이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관 안에서는 백제 무왕대에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유일한 기록인 '관세음 응험기 목판짜기' 체험과 당시 백제왕궁에서 사용

되었던 기와모형(수막새)을 찰흙으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추석 전날인 12일 저녁에는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에서 주관하는 소원등 날리기 행사도 진행된다. 더불어 마한관에서는 팔씨름놀이,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콩주머니던지기, 고리던지기, 허리씨름, 단체줄넘기, 투호놀이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옹포에 있는 고분전시관에서도 투호,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단체줄넘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창야행, 태풍 '링링' 복상에 9월 중순으로 연기

고창군이 오는 6~8일 개최 예정이었던 '2019고창야행'을 태풍 복상에 따라 9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추진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언론과 SNS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야행은 음성 야간 관람을 비롯해 야간 백중싸움, 풍민풍락 다듬이질 노래 공연을 비롯해 마술·판도마임 등 각종 버스킹 공연, 다양한 먹거리·공예 체험 등이 열린다.

특히 개막공연인 '기원의 거울'은 지난해에 이어 고창오거리당산제보존회 회원들과 고창군민 4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오페레타 공연으로 주민화합의 장이자 역사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태풍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축제 일자를 변경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